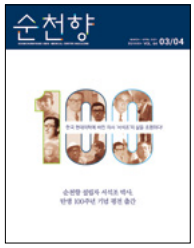


표지설명
순천향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100의 숫자에 그의 사진을 넣어 의사 서석조의 업적을 기리자는 의미를 담았다.

순천향

2021.03+04
Vol. 64 통합의료원보

CONTENTS

2	SPECIAL	향설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 특집
6	LOVE	딸에게 선물 받은 제2의 인생
8	FOCUS	순천향대 서울병원, 코로나19 완벽 대처 시스템
10	HISTORY	‘서석조SCH플랫폼’
12	DOCTOR	양승부 구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16	VISIT	순천향대 서울병원 ‘영양팀’
20	WITH	엄경옥 꾸아퍼스트 대표
22	ISSUE	서울병원, 노인성 쇼그렌증후군 특징 밝혀
24	ISSUE	부천병원, 개원 20주년 기념 엠블럼 제정
25	ISSUE	부천병원,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 개소
26	ISSUE	천안병원, 중부권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전담
28	ISSUE	구미병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30	KNOWLEDGE	스테로이드-니모디핀 병합요법, 돌발성 난청 치료 획기적 개선
32	KNOWLEDGE	행복한 캠핑이 사망사고 부른다
34	KNOWLEDGE	폐암환자의 막힌 숨구멍, 치료기관지내시경으로 뚫어 살린다
36	KNOWLEDGE	이제 치아 임플란트 수술 누구나 가능
38	EQUIPMENT	부천병원, KINEVO 900
40	ALUMNUS	양거승 삼육서울병원 원장(순천향 의대 1회 졸업생)
42	NEWS	

「순천향」 통권64호

발행일 2021년 3월 19일 **발행인** 서유성(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편집위원** 이미종, 한세형, 이상원, 유채민
연락처 02-709-9593 www.schmc.ac.kr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59 **기획·편집·디자인** 피앤플러스 02-2269-5689 **인쇄** (주)대한프린테크

향설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평전 발간

『한국 현대의학의 성장에 바친 삶』

대한민국 현대의학의 거목! 그가 바로 순천향대병원·순천향대학교 설립자인 향설 서석조 박사다. 올해로 그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평전을 출간했다(박지영·황교련 공저/중앙미디어북스). 그가 대한민국 의학계에 미친 업적과 철학이 재조명받고 있다. 이 책은 의사 서석조의 실존적 삶 구석구석을 충실하게 재현한 '오딧세이'로, 광제인술과 광시육영을 이룬 대한민국 현대의학사의 흐름을 기록한 서사적 기록물이다. 그의 탄생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비로소 향설이 기록한 전설을 만나게 되었다.

글_백승주

의사이기 이전에 인간 사랑을 실천한 '휴머니스트'

의술로는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철저히 받든 '닥터'

그는 의사이기 이전에 인간 사랑을 실천한 휴머니스트이고, 의술로는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철저히 받든 의사이다. 이 두 가지를 압축하고 그의 개척정신까지 합쳐서 설명할 단어를 찾는다면 '앙트레프레너'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모두 함께 가자는 혁신가적 기업정신'이라는 많은 뜻이 담긴 '앙트레프레너'를 한국말로 대신할 단어가 없음이 안타깝다.

미국에서 현대의학을 공부한 그는 신경내과분야의 개척자로 '뇌졸중' 의학용어를 세계 최초로 사용했으며 대한민국 1호 의료법인 '순천향병원' 설립은 물론 의사가 설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1호 의과대학인 순천향의과대학을 설립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로 CPC를 도입했고 최연소 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하는 등 수많은 의학계에 1호 수식어가 뒤따르는 우리나라 현대의학의 거목이다. 그의 창의적 의술과 혁신적 경영이 투영된 대한민국 의학계의 위대한 업적이다. 그의 한국 현대의학의 성장에 바친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삶과 정신이 그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이번에 발간한 책에 오롯이 담아냈다.

향설(鄕雪) 서석조 평전이 이제야 발간된다는 것은 아쉽게도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향설의 인품으로나 업적으로나 사회에 끼친 영향력으로나 진작 재조명되고 재 평가받았어야 마땅한 인물이다. 대한민국 의료계나 병원, 의과대학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지만 향설은 의학계라는 전문 분야에서만

> 서석조는 미국에서 신경학이나 내분비학과 같은 발전의 첨단에 있는 의학 분과를 한국 의학계에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도입한 인물들 중 한 명이었다. 그전까지 한국에서의 신경학은 내과, 정신과, 신경외과에서 조금씩 다루어졌으나 독립된 분과로서의 위상은 갖고 있지 않았다...이에 비해 서석조가 신경학 및 내분비학을 전공 분야로 표방한 점은 내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69-70쪽 중 발췌)

존경받아서는 안 될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의술로만 환자를 배려하고 치료한 것이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인간 본성에 기초해 인술을 베풀었으며 인간 사랑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다. 다행히도 향설 탄생 100주년과 서거 20주년에 즈음하여 그의 평전이 발간됨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향설의 인간성을 꿰뚫어 평가한 평전

향설 평전을 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겠지만 1장 유년 시절부터 15장 제자들의 회고까지 책 한 권을 통틀어 일관적이고 공통적인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그가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고치는 것이며 의사는 단지 옆에서 도울 뿐'이라는 말은 향설이 평생 입이 닳도록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이며 그가 스스로 철칙으로 삼아온 겸손한 마음이다. 그 말과 그 마음은 인간사랑 실천과도 맞닿아 있다.

그의 인간사랑은 갑자기 의사가 되어서부터 인술을 베푸는 마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태어날 때 이미 타고난 그의 모태 인성이었다. 물론 그것 또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그의 집안 내력과 그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서석조는 경북 지역의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이렇듯 철저한 기독교 정신을 지닌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고, 미국 선교사들이 드나드는 서구 문화를 접하면서 성장했다. 그가 "하늘의 뜻에 순응하고 인술을 베푸는 고향"이라는 의미의 '순천향(順天鄕)'이라는 병원 이름을 지은 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음을 알 수 있다. "환자는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고치는 것이다. 의사는 이러한 하늘의 뜻을 돕는 사람이다."

그를 만나본 의사는 누구든 하나같이 이 말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은 제자나 후배 의사에게 들려주는 말이었으나 실은 그가 의사가 되고자 했던 본바탕에 깔린 그의 철학이기도 했다. 그런 뿌리 깊은 마음이 있었기에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의대생은 물론, 현장에서 환자를 접하는 의사들에게도 '환자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숨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이는 의사가 되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평전의 딱딱함을 깨는 잘 읽히는 내용과 문장

이 책의 하이라이트이자 핵심은 소제목이 말해 주듯이 '13장 인간 서석조'에 모두 담겨 있다. ▲인술을 실천한 의사 ▲불굴의 의지를 지닌 학자 ▲자상하고 엄격한 스승 ▲사람을 우선시하는 경영자

13장은 향설 서석조의 모든 것을 망라하여 총 정리한 한편의 작은 자서전이다. 그를 대해 본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대표적인 말은 '질병은 하늘이 고치고 의사는 그 과정을 도울 뿐'이라는 말이다. 향설 서석조의 의사 철학이기도 한 이 말이 주는 의미를 의사도, 환자도 다시 한 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을 '하늘에 운명을 맡기자'라고 해석한다면 의사도 환자도 크나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늘이 '그 의사와 그 환자'를 만나게 해준 것이고, 이렇게 하늘이 만들어준 인연을 서로 감사하게 여겨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옳다.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서로를 존중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는 의사이기 이전에 인간 사랑을 실천한 휴머니스트이고, 의술로는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철저히 받든 의사이다. 이 두 가지를 압축하고 그의 개척정신까지 합쳐서 설명할 단어를 찾는다면 '앙트레프레너'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모두 함께 가자는 창조적(창립자) 기업 정신'이라는 많은 뜻이 담긴 '앙트레프레너'를 한국말로 대신할 단어가 없음이 안타깝다.

향설 평전의 가치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향설의 폭넓은 인품과 인간사랑 실천을 재조명했다는 것이지만, 그 점을 독자에게 거부감 없이 전달했다는 것 또한 높이 평가받을 일이다. 의학계의 개혁자이자 거장인 의사의 평전임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의학전문용어 외에는 되도록 어려운 전문용어 사용을 절제하였고 의료계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한 내용과 문장이 돋보이는 평전이기도 하다.

이 책 한 권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한국 의학계의 시대적 흐름, 의사들의 수련 과정, 병원의 특성, 환자와 의사의 소통, 환자들의 심적 갈등 등 폭넓은 상식을 섭렵할 수 있음 또한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향설 서석조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한국 의학의 변천사를 보는 재미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는 의학계에 굵은 한 줄 획을 긋고 그가 평생 순응하던 하늘로 떠났지만, 아직도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수많은 의사들 가슴에 깊이 남아 존재하고 있다.

또한 서석조라는 한 의사의 인생을 통해 한국 현대의학의 성장 과정을 보여준다. 일생을 환자 치료와 후학 양성에 바치면서 신경학이라는 전문 분과의 수립과 순천향병원, 나아가 순천향대학의 설립을 이끈 서석조의 삶은 식민지 시기의 의학 교육, 해방 후 의학 체계의 재편과 미국 의학의 도입, 의학의 세분화와 전문화, 무의촌 해소와 지역 의료의 확충이라는 한국 의학의 중요한 변화들과 맞닿아 있다. 이런 서석조의 행보를 추적함으로써 이 책은 한국 현대의학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순천향 의료진과 딸에게 선물 받은 제2의 인생”

말기 간암 생체간이식 수술로 극복

천안병원 배상호 외과 교수(오른쪽)와 권병희 환자

택시운전으로 가정을 꾸려 온 권병희 환자는 늘 불규칙한 생활로 힘겨웠다.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은 여러 가지로 몸에 무리를 주었다. B형 간염 보균자이기도 한 권 씨는 어느 날 십이지장 궤양으로 병원을 찾았다. “궤양은 치료가 되었는데 간수치는 떨어지지 않더라구요. 순천향대 천안병원 의료진의 협진을 통해 간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기 간경화에 간암까지, 권 씨의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이때 외과 배상호 교수는 권 씨에게 간이식을 권유했다. “딸과 혈액형이 같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거나 딸에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아직 젊은 딸이 혹여 간이식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나눠준 간으로 제2의 삶을 살다

고심 끝에 꺼낸 권 씨의 얘기에 딸은 단 몇 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알았어 아빠, 내가 해줄게.”

권 씨는 생체간이식을 통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단 생각에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은 딸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겁기만 했다. 아빠의 마음이었다. 그런 권 씨를 오히려 딸이 설득했다. “아빠,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수술해요.”

딸의 용기와 설득에 권 씨도 생체간이식을 결심할 수 있었다. 천안병원 외과 간이식팀은 2016년 10월 25일 알코올성 간경화 환자를 대상으로 첫 간이식 수술을 시작한 이래 2년간 20번의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바 있다. 그동안 주로 뇌사자의 간을 통째로 옮기는 ‘뇌사자 전간이식’으로 진행됐지만 지난해부터는 생체간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간이식 수술자체가 높은 난이도의 수술일 뿐 아니라 권 씨의 경우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

담당의인 배상호 교수는 “다른 치료를 많이 했었기에 혈관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수술 전 방사선치료로 인한 혈관의 혈전을 제거해야 했다”고 회상했다. 또한 장간막정맥을 찾아서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하는 어려운 수술이었다. 통상적으로 8시간 정도 소요되는 수술이 14시간이 걸려서야 끝낼 수 있었다. “배상호 교수님과 의료진의 노력으로 긴 수술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딸의 결심과 의료진의 노력으로 저는 이제 제2의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로도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권 씨는 수술을 한지 3주가 지난 지금, 곧 퇴원을 앞두고 있다. 딸은 이미 퇴원을 마친 상태였다. 딸의 수술자국이 못내 걱정스럽기만 한 권 씨에게 “그냥 감추고 다니면 되지 뭐. 아무렇지도 않아 아빠!”라고 딸은 다독거렸다.

수술의 경과는 좋았고 이제는 관리를 잘 하는 일만 남았다. 배 교수는 “앞으로 5~6개월 정도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2014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온 간이식팀이 이제는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보다 더 큰 병원을 권유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저는 병원의 규모보다는 어떤 의료진을 만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상호 교수님을 비롯한 천안병원의 의료진을 만난 것은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를 돌보아 준 코디네이터 분께도 너무 많은 신세를 진거 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권 씨는 이제 좋아진 몸으로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꾸고 있다. 또한 새 삶을 선물 받은 것에 대한 새로운 각오도 세웠다.

“나 자신뿐 아니라 나를 살려준 우리 가족들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동안 조금은 부족한 아빠였다면, 이제는 가족에게 더 큰 힘이 되어주는 가장이 되겠습니다.” 딸은 “아빠, 이제 엄마 속 좀 그만 썩이고 몸 관리 잘해”라며 웃었다.

본인 간의 2/3를 아빠한테 내어준 딸도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크기로 자나날 것이라 배 교수는 설명했다. 권 씨의 부인은 혼자서 많은 고생을 한 코디네이터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칭찬합시다’에 추천할 생각이다.

“코디네이터라는 역할이 얼마나 극한의 직업인지 처음 알았어요. 의사 분들 뿐 아니라 홀로 환자를 돌봐준 코디네이터 역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권 씨는 “‘무섭다, 아프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항상 곁에서 웃어준 딸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자신의 몸을 더 소중히 관리하겠다.”며 “의료진과 가족이 선물한 제2의 인생을 이제는 더욱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여러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동안 차분히 생체간이식 수술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온 순천향대 천안병원 간이식팀은 앞으로도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 교수는 “의료진의 노력도 있었지만, 아버지를 향한 딸의 마음, 딸을 향한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간이식이 잘 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다.”며 “지역의 더 많은 환자들에게 더 좋은 수술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연구에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위기를 넘어 전화위복의 기회로 거듭납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코로나19 완벽 대처 시스템 마련

서울병원, 코로나19 완벽 대처 시스템

- 전문 업체 방역 소독, 환기 및 UV소독 거쳐 클린존 확보
- 감염병 발생 신속대응팀 정비
- 원내 감염 방지 위해 보호자 간병인 밀집 문제 차단 시스템 마련
- 역학조사 프로그램 개발
- 교직원 마음가짐 쇄신 / 마스크 · 손위생 · 거리두기
- 온라인 회의 / 대면회의는 환기 잘 되는 넓은 장소만 허용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를 겪은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빠르게 안정화하고 있다. 외래진료를 완전히 정상화 하였고, 15일부터는 폐쇄했던 본관 병동을 해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수술과 입원치료도 정상화 했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2월 12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월 18일까지 유행이 이어졌다. 이후에는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다가, 3월 3일부터는 원내 추가 발생 없이 통제가 되고 있다.

유행기간 및 사후 관리 기간 동안 병원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 했다. 소독과 방역은 물론, 감염병 대응과 관리 체계를 꼼꼼하게 보완해 더 안전한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선제적으로 외래를 폐쇄했던 기간에는 외래 구역 전체의 소독과 방역을 마쳤다. 병동도 전체 구역을 순차적으로 비워가며 자체 정리정돈, 미화부청소, 전문 업체 방역과 소독, 환기 및 UV소독의 절차를 거쳐 클린 존으로 거듭났다.

감염병 신속대응팀도 정비했다. 감염관리팀을 중심으로 데이터 상황실, 안전보건상황실을 보강해 원내외 소통 상황에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원내 감염 방지를 위해 보호자 간병인의 밀집 문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방문객 출입제한, 환자와 직원 관리, 청소 및 환경관리 등 각 분야별 세부계획과 지침도 보완했다.

거동이 가능하고 낙상 위험이 없다면 상주보호자나 간병인을 제한하고, 간병이 필요할 경우 간병 시작일 기준 3일 이내 코로나19 음성결과가 있어야 한다. 간병 시작 후 3일째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매주 1회 반복 검사도 받아야 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상주보호자를 변경해야 할 때는 24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이 되어야 한다. 병동에서의 층간 이동 제한, 타 간병인과의 만남 금지, 병실에서의 식사 지침도 보완하고 이를 강력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

역학조사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이전까지는 수작업으로 원내 노출 경로를 파악했지만 향후에는 환자등록번호를 통해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환자의 이동 수술, 검사 등 원내 이동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교직원들의 마음가짐도 새롭게 했다. 모든 교직원이 마스크와 손위생만 잘 해도 자가 격리 수준의 노출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염이 되는 일을 의미 있게 줄일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근무 중이다. 회의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대면회의는 환기가 잘 되는 넓은 장소만 허용하고 있다. 특히, 매일 문자를 통해 전 교직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시에는 안전보건팀의 안내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근무 중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전화 진료 후 코로나19 검사 받고, 귀가하고 음성이 확인된 후 다시 근무하는 체계를 갖췄다.

서유성 병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며 "함께 위기를 극복해준 모든 교직원과, 순천향대서울병원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환자와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SCH플랫폼'의 재발견

'서석조SCH플랫폼'이 이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순천향대병원·순천향대학교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의 서거 20주기와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의학 발전의 위대한 업적인 병원·대학·의학연구의 통합 시스템 구현의 토대인 '서석조SCH플랫폼'의 재발견과 이를 기념하고 후학들에게 표상이 되고자 향설박사의 일대기를 연재합니다.

뇌졸중腦卒中을 '발명'하다

끊임없이 연구하며 효과적인 치료법을 고민했던 서 박사의 노력은 환자 증가로 이어졌다. 서 박사의 병원에는 그의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중풍'이 아니라 '뇌졸중'

흔히 뇌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는 등 뇌혈관 순환 장애로 인해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말을 어눌하게 하는 증세를 '중풍(中風)'이라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의학용어 중에는 중풍이라는 단어가 없다. 일반적으로 반신불수 환자를 가리켜 중풍이라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볼 때 반신불수에 이르는 질환은 그 원인과 종료만 해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

중풍은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한의학에서 다루어져 왔었고 치료도 주로 한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 박사는 서양식 의학을 배운 의사들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또 서양 의학계에서는 '뇌혈관 손상증'이라는 의미의 영어 약자 CVA(CerebroVascular Accident)를 사용하고 있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은 질병의 메커니즘에 대한 기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질병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야 이상할 것도 없었지만, 영어 약자를 병명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CVA는 뇌혈관이 장애를 입어 일어나는 질병을 총칭하는 표현이지만 일반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용어이기도 하다. 서 박사는 함께 연구를 하던 제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용어부터 정리하자고 역설하며 스스로 '뇌졸중(腦卒中)'이라는 용어를 생각해 냈다. 요즘 일반인들도 '중풍'보다는 '뇌졸중'이라는 병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를 처음 만들어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서 박사다.

우리나라만의 뇌졸중 양상 분석

뇌졸중은 당시만 해도 40대 이상 성인의 가장 많은 사망원이 되는 병으로 사망자 전체의 20~25%를 차지하고 있었다. 40대 이상 사망자 10명 가운데 2~3명이 뇌졸중 때문에 사망하는 셈이니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서 박사는 우리나라 신경내과학의 개척자였고 교육을 통해 전문의료인을 배출하고 한방으로나 치료하던 뇌졸중 같은 신경병을 현대의학으로 치료하게 한 선구자였다.

1961년 내과학회에 발표한 〈뇌졸중 환자 100례에 대한 임상적 관찰〉 논문에서 서 박사는 처음으로 '뇌졸중'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논문은 지난 42개월 동안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뇌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 100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같은 기간에 내원한 환자 중에서 뇌졸중의 유병률은 0.71%였으며 이는 서양의 환자보다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2대 1로 더 높았으며 혈전에 의한 뇌졸중 발생이 전체의 46%로 가장 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사망률은 뇌출혈이 70.8%로 가장 높았으며 지주막하 출혈이 50%로 그 다음 순위였다. 뇌졸중 사망자의 경우 84.7%가 48시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논문은 뇌졸중의 발생 빈도, 원인, 사망 원인, 성비 등 후향적 코호트를 통해 분석한 최초의 자료로 서양의 빈도와 비교되는 우리나라만의 뇌졸중 발생 양상을 조사한 연구 논문이다.

뇌졸중 치료로 명성 얻어

이어 서 박사는 1963년 대한의사협회에서 선정하는 숙제보고로 〈뇌졸중〉을 발표했다. 연구의 핵심은 뇌졸중 치료에 관한 것이었는데 동물실험을 통해 막힌 뇌의 혈관을 뚫고 치료 방법도 도출해냈다.

이러한 내용은 학회에서 내과 의사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오늘날 뇌전증의 치료제로 혈전용해제가 쓰이게 된 것도 당시 연구의 영향이 컸다.

이 숙제보고는 1년에 한 사람만 선정되는 한국 의학계 최고 권위의 연구였으며 신경외과학회보다 앞선 연구 성과였다.

또한 서 박사는 뇌졸중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만의 치료 방법들을 많이 연구, 직접 환자들에게 적용시키기도 했다.

당시 뇌졸중 증세가 나타나거나 뇌에 이상이 있으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식이 없었는데 서 박사는 의식이 없는 뇌졸중 환자에게 수면제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위급한 생명을 구하고 마비 상태를 풀어주는 치료법으로 명성을 날렸다.

이러한 방법은 수년 후 공인치료법이 되고 논문과 학문으로 정립되었으며 'Barbiturate Cama Therapy'라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순천향이 낳은 투석혈관 인터벤션 시술의 대가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스 후즈후' 등재…의료봉사 모범도

글_전진용 사진_이현익

한 분야에서 대가(大家)라는 칭호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뿐 아니라 드문 일이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다. 이런 칭호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분야에서 오랜 시간 피나는 노력과 수많은 경험이 동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는 한 분야에서 대가(大家)라는 칭호가 무색하지 않은 이가 있다. 바로 국내 인터벤션 시술의 1.5세대라 할 수 있는 영상의학과의 양승부 교수다.

제주도가 고향인 양승부 교수는 다른 아이들과 사뭇 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다. 쑥스러움을 너무 많이 타는 내성적인 성격에 겁도 많았다. "어릴적 사진을 보면 활동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혼자 얌전히 앉아 있는 사진이 전부거든요. 혼자 시간을 보내고 피아노를 칠 뿐 친구와도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를 회상하면 기억나는 친구가 한명도 없을 정도로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샤이보이였다. 이런 그가 어머니에게는 걱정거리였다. 어머니는 양 교수의 이런 성격을 고치고자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냈다. 바로 웅변이었다.

웅변으로 바뀐 인생, 의사를 꿈꾸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어머니의 권유로 웅변을 시작한 양 교수의 성격은 기대이상으로 빨리 변화되기 시작했다.

"웅변을 배우면서 성격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내 대회에서 상도 여러 번 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점점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어머니의 결정이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된거죠."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그저 조용한 학생이었던 양 교수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활동적인 학생으로 어느새 변해 있었다. 이때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 찾아온다. 부모님의 권유로 의사의 꿈을 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3남 1녀 중 둘째예요. 부모님은 형은 법조계 분야에 갔으면 하셨고, 저는 의대에 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자연스레 의사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꿈을 이루기 위해 입학한 곳이 순천향대학교 의대였다.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활동적으로 바뀐 양 교수는 그 누구보다 활동적으로 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했다. 과 대표도 하고 '파사'라는 연극동아리 활동도 했다. 예과 2학년 때는 연극 '언챙이 곡마단'에서 주연인 계백장군 역할을 맡기도 했다.

"연기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학년이 올라가면서 서열에 따라 주인공을 맡았거든요(웃음). 그렇지만 몇몇 연극 공연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기억은 의대생활 중에 잊지 못할 추억 중 하나입니다" 본과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의과 학업에 전념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공부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어느덧 인턴을 마치고 군대 복무 후에는 가정을 이뤘다. 그래서 양 교수가 꿈꾸는 사람은 훌륭한 의사일 뿐 아니라 가정적인 가장이기도 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영상의학과였다.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선택한 분야가 영상의학과였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제때 출근하고 제때 퇴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경쟁률도 높고 들어가기도 힘든 과였지만, 그 동안 학업에 충실했던 양 교수는 쉽사리 영상의학과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영상의학과를 선택한 이후 양 교수의 생각과는 달리 흘러가게 하는 반전이 일어났다. 인터벤션 시술을 알게 되면서 부터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벤션 분야가 국내에도 조금씩 알려졌으며, 서울병원의 구동억 교수로 인해 전국적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구 교수의 권유로 인터벤션을 하게 되면서 제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서울병원 구 교수와 양 교수는 국내 인터벤션 분야에서 1.5세대 정도로 분류된다. 전국적으로 붐을 조성하는데 이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격상 무언가를 하고자 결심하면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완벽하려고 노력합니다. 점점 인터벤션 시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시술 횟수가 크게 늘어났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생활은 아니었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바쁜 일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생각했던 대로 가족과 많은 시간은 보

이라크 중환자 전문의들을 상대로 한 인터벤션 시술 및 교육

낼 수 없지만 그만큼 얻는 것들이 많았다. 요즘은 한 달에 150~200건의 시술을 하고 있다. 1년으로 환산하면 1800건~2400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 많은 시술이 오히려 이 분야의 권위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회상한다.

투석 인터벤션 권위자로 우뚝…국제인명사전에도 등재

"'의사의 힘은 환자로부터 나오고 의사의 실력도 환자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을 믿습니다. 결국 많은 환자에 대한 시술경험이 저한테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초창기에는 자궁근종 분야에 집중했다. 이후 방향을 바꿔 지금의 투석혈액 분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자궁근종 환자들은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반면 투석환자들은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때부터 인터벤션을 활용한 투석 연구에 더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구미병원은 20여 년 전부터 양 교수를 중심으로 인터벤션 시술을 지역 내 최초로 시행해 많은 환자들의 응급질환 치료에 힘써 왔다. 지금 양 교수를 국내에서 투석혈액 인터벤션 분야 최고의 권위자 중 한명으로 꼽는데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지금도 연구는 게을리 하지 않는다. 각종 관련 학회에서 학술활동과 강의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터벤션 관련 논문도 40~50편 발표했다. 여러 학술상도 받았고 저명한 세계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후'에도 이름을 올렸다. '마르퀴스 후즈후'는 1899년부터 발간되었으며, 매년 215개국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남긴 리더를 선정, 업적과 이력을 소개하는 인명사전 이다.

"뭐 대단한 활동을 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 다 인걸요."

지금은 본인의 지식을 공유하고 자신의 기술을 전파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일손이 모자라면 언제든지 파견을 나선다. 시간을 내어 아시아 인터벤션 학회에서도 근종과 혈관투석 등의 강의를 한다. 국내 학회에서는 올해 7월 저자로 참여한 교과서가 출간된다. 몇몇 국제학회에서는 비대면으로 교육에 참여하기도 한다.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강소병원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이런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 동안 빼 놓지 않은 분야가 의료봉사다. 현재 구미병원의 의료봉사단장을 맡으며 사회봉사를 지휘해 왔다.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해 대면 봉사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봉사단이 사비로 모은 회비로 물품을 사서 기부하는 것으로 봉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 활성화시켜야 하겠죠. 저희 순천향대학의 모토가 '인간사랑'이잖아요."

재작 년 까지만 해도 농진청 등과 함께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봉사단 활동을 지원해 왔다. 필리핀이나 베트남과 같은 지역에 쌀이나 의료용품을 전달하기도 하고 국내 사회단체에 마스크, 파스 등을 구입해 전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양 교수는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역시 학문연구와 병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구미병원의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그에게 병원을 이끌어 나가는 일 역시 학문연구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병원이 의사 중심의 조직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모든 구성원들에게 평생직장으로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병원을 들여다보면 마치 '대한민국'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병원치고는 규모나 시설 등 물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병원에는 없는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하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를 극복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힘과 단합을 발휘하거든요. 아마도 가족 같은 끈끈한 유대관계에서 나오는 힘이라 생각합니다." 순천향대학병원에 대한 남다른 애정도 표현했다.

"짧은 시간에 지금과 같은 발전을 이룬 것에 대해 많은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훌륭한 후배들도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후배들도 우리대학의 '인간사랑' 정신을 주위에 전파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 교수는 "소망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가족과 병원식구들이 건강한 것이며, 학문적으로는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새로운 결과물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 주민들과 호흡하며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이 작지만 강한 강소병원으로 더욱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제2의 의료진으로 책임감·자부심이 커요"

최 일선에서 식단으로 치료 돕는 '임상영양사'

글_전진용 사진_한남기

대학병원은 요소요소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의사, 간호사 외에는 잘 떠올리질 않는다. 의사와 간호사만으로 환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치료과정과 회복과정에서 환자 개인의 질병과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영양팀'이다. 단순히 식단을 짜고 식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치료에 가장 적합한 영양정보와 올바른 식단을 제공하는 이들이기에 어떤 의료진과 비교해도 그 중요성이 가볍지 않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영양팀은 타 병원에서 모니터링을 할 정도로 전문적인 환자 영양관리로 정평이 나있다. 현재 8명의 영양사와 2명의 조리사로 구성되어 있다. 8명의 영양사는 모두 힘든 과정을 거쳐 지금의 영양팀에 합류했다. 일반 영양사가 아닌 임상영양사 자격을 갖춰야만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 임상영양사는 질병, 치료 등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더해진 또 다른 의료진이라 할 수 있다.

영양팀은 환자 질병에 따라 의사에 의해 처방된 식사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식단을 구성한다. 환자뿐 아니라 모든 직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영양식단을 계획해 제공하는 급식영양 서비스 역시 담당한다. 또한 질병회복을 위해 영양관리가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영양상담, 식사요법 교육 등을 제공하는 임상영양 서비스도 주 업무 중 하나다.

환자 상태에 맞춘 최적화된 급식영양 제공

이중 환자식의 경우 일반식, 치료식, 경관유동식, 검사식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식은 주식의 종류에 따라 상식, 연식, 유동식으로 제공 가능하며, 환자의 양호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균형식 식단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일반 영양사가 아닌 임상영양사 자격을 갖춰야만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 임상영양사는 질병, 치료 등 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더해진 또 다른 의료진이라 할 수 있다."

치료식은 환자의 질병에 따라 처방되며 당뇨 및 비만식, 위장관 질환식, 간담도계식, 심순환계식, 신장질환식, 요로결석식, 혈액종양식, 구강질환 및 점도 조절식, 특정영양소 조절을 위한 성분 조절식 등 세분화해 적합한 영양치료가 이루어진다. 주로 중환자들에게 사용되는 경관유동식은 경장영양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로 환자의 질병과 합병증 정도에 따라 영양액을 선정하여 개인별, 단계별로 영양관리가 이루어진다. 환자의 질병상태나 진단을 위해 제공되는 검사식도 있다.

국가자격 갖춘 전문적 지식의 임상영양서비스

임상영양서비스는 영양팀의 매우 핵심적인 업무다. 환자의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를 위한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다. 따라서 영양사들은 학사취득, 영양사자격 취득 후에도 석사를 취득하고 1년간의 경력을 인정받아야만 국가공인 임상영양사 취득자격이 주어진다. 의료진으로 필요한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더해져야만 임상영양사로 활동할 수 있다. 질병과 상해 치료를 위한 총체적인 영양치료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임상영양서비스는 크게 개별영양교육과 집단영양교육으로 나뉜다. 개별영양교육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뇨병, 고도비만, 신장질환, 심혈관 질환, 암, 간질환, 위장질환, 소아비만, 유전성대사질환 등 각 질병의 영양상담을 진행한다. 개별영양교육은 △영양진단(영양상태판정) △영양요법(계획, 상담, 교육 등) △영양관리(결과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에게 최적화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집단영양교육 환자 뿐 아니라 보호자들에게도 질병에 도움이 되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기적인 집단교육에서 식사요법과 활용 가능한 식단 제시, 조식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구섭취를 통해 영양필요량을 충족할 수 없는 환자에게는 관을 통해 위나 장으로 영양액을 공급하는 경장영양을 제공하고 있다. 경장영양마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맥으로 영양액을 공급하는 정맥영양을 제공하고 있다.

INTERVIEW

윤수진 영양팀 팀장

"환자 치료를 위한 절대적 책임감 요구돼"

윤수진 영양팀 팀장은 22년 경력의 베테랑 영양사다. 경력 내내 이 곳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함께 하고 있다. "처음에 서울병원에서 실습을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임상영양사가 되는 것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거든요. 처음 인턴으로 시작해 한 단계씩 올라오다보니 지금의 위치가 됐습니다."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영양사 국가자격증을 땄지만 임상영양사가 되는 길은 녹록치 않았다.

"임상대학원을 수료하고 영양사 1년 이상의 경력과 임상영양사라는 국가자격증을 따야만 합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고 그 과정을 거쳐야만 임상영양사로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윤 팀장은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강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급식을 책임을 져야 하고 임상적으로 질환에 필요한 전반적인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접적 치료는 아니지만 큰 책임감이 따르는 일입니다." 식단은 주치의가 식사처방을 하면 그 처방으로 상차림을 하고 적합한지를 재확인한다. 이후 식단회진을 하며 주의사항이나 여러 문제를 체크하는 과정을 거친다. 퇴원 후에도 환자의 식단이나 식습관에 대한 상담을 해준다.

"급식, 임상 모두 중요해요. 교직원들이 음식에 만족할 때도 보람을 느끼고 환자들이 체중이 오르거나 질환이 나아질 때 역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가끔 환자들이 보내주는 전화나 편지 등의 격려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윤 팀장은 "아직 임상영양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환자의 건강을 위해 다른 의료진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INTERVIEW

서혜연 영양팀 계장

"감사 전하는 환자 보며 임상영양사로서 보람"

"전공을 하고 실습을 하다 보니 대학병원 임상영양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반 영양사보다는 매우 전문성 있는 분야로 보였습니다."

서혜연 계장은 본인이 선택한 길이지만 임상영양사가 되기까지의 과정도 힘들었고 실제 업무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솔직히 그만둘까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의사는 아니지만 임상분야를 공부하고 의사와 간호사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거 같아요. 물론 환자를 통해 얻어지는 보람도 있었구요. 지금까지 버티게 해준 힘인 거 같습니다." 힘들게 얻게 된 임상영양사기에 다른 분야보다도 치료식에 더 많은 신경을 썼다.

"중환자실에는 코나 배에 호수를 꼽아 영양을 공급받는 경장영양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의식을 되찾고 내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 까다로운 환자 가족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적도 적지 않았다고 회상한다. 하루에도 열 번이 넘게 콤플레인을 걸거나 주말이나 휴가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는 보호자들도 있었다.

"어느 날 그 까다롭던 보호자가 작은 하트모양의 카드를 건네더라고요. 저와 같은 의료진을 만난 것에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양팀의 가족 같은 분위기는 서 계장이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있다. "순천향병원의 가장 좋은 점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가족같이 끈끈한 것이 있거든요." 서 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 영양팀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INTERVIEW

김은선 영양사

"영양상담 급여화로 전문 의료인으로의 자부심"

김은선 영양사는 임상영양사라는 특성상 업무 외에도 질환이나 질병들에 대한 환자교육 동영상 및 교육자료 제작, 질환별 레시피북 발간 등의 업무로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다.

"병원 영양사라고 하면 흔히들 단순 급식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임상영양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교육과정과 경험, 노력이 필요한데 말이예요."

김은선 영양사 또한 임상영양사를 시작한 동기는 학부시절 병원실습을 통해서 병원 영양사를 접한후 그 매력에 매료되어 병원 인턴십 과정을 거쳐 순천향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처음 인턴 시작은 순천향 부천, 순천향 천안병원에서 계약직을 거친후 다음으로 정착한곳이 바로 순천향 서울병원이었다.

"임상영양사로서 일하던 중 상담이 급여화되어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면서 전문 의료진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더욱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정식으로 나라의 지원을 받으면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김 영양사는 많은 암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고되기는 해도 중환자들을 관리하면서 느껴지는 더 큰 보람도 있다. "제가 맡았던 환자가 건강해져 외래진료 등을 통해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힘든 투병 기간에 큰 힘이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임상영양사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교육이나 워크숍 등 보다 활발한 활동과 교류가 힘든 점은 아쉬움이라 토로했다. "1년에 한번씩 4개 병원 영양팀이 모여 연합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우리 서울병원 영양팀 뿐 아니라 4개 지역 병원 모든 영양팀들이 환자 치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김 영양사는 "엄마, 친언니 같은 선배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며 함께 자유롭게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음이 임상영양사로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나눔 속에서 또 다른 아름다움을 찾아요”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10년 넘게 기부활동

사람의 외모를 아름답게 만드는 직업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헤어디자이너다. 한 성공한 헤어디자이너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건강한 육체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부천지역을 기반으로 시작해 전국적인 헤어살롱 프렌차이즈 기업을 일궈낸 엄경옥 대표의 이야기다. 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엄 대표에게는 기부활동 역시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여러 일 중에 그저 한 부분일 뿐이다.

글_전진용 사진_장덕희

엄경옥 대표는 지난 2008년 프랑스 헤어살롱 브랜드 ‘꾸아퍼스트’를 부천에 론칭했다. 프랑스 브랜드를 들여 온 이유는 국내에서는 보지 못한 최고급 헤어살롱을 선보이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엄 대표의 도전은 눈부신 결과로 이어졌다. 어느덧 전국 14개 매장을 가진 프리미엄 헤어살롱으로 성장시킨 것.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현대백화점 14개점에 헤어살롱을 입점 시켰다. “항상 가장 고급스러운 헤어살롱을 만들겠다는 일념뿐이었어요. 그런 노력이 백화점이 추구하는 방향과 잘 맞았던 거 같습니다.”

엄 대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생각은 지역사회에 함께 성장하겠다는 것이었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는 것이야 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먼 곳이 아닌 가까운 주변을 둘러보다 인연을 맺은 곳이 바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입니다.” 부천병원과 꾸아퍼스트 본사와는 도보로 불과 10분 거리에 있다. 분야는 다르지만 같은 지역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 “저희가 하고 있는 기부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마음과 꾸준함이라 생각합니다. 10년 넘게 부천병원과 함께 이 지역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마케팅에 나눔과 사랑을 첨가하다

엄 대표는 문화예술과 사회공헌을 결합한 마케팅을 매년 4회씩 진행하고 있다. 문화예술을 통해 아름다움의 가치를 알리고 고객들이 자연스레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매년 연말에는 나눔을 목표로 하는 ‘스타 노엘’이라는 겨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행사들 통해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를 병원에 기부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모든 고객들이 기부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거든요”

고객을 통한 수익의 1%를 부천병원 후원위원회에 기부하고 있다. 또한 참여한 고객에게는 별 모양의 기부증서를 제공한다. 이 증서는 가족이나 주변사람에게 줄 수 있으며 이 증서를 가지고 온 고객에게는 20%의 할인 혜택을 준다. 마케팅 활동을 통해 아름다움과 나눔의 사랑을 전하고자 함이다. “작은 정성과 나눔이지만 많은 소아 환우들에게 희망을 주고 마음의 아름다움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에 모든 직원들이 큰 행복을 느낍니다. 부천병원은 그 보답으로 우리 직원들의 건강검진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함께 나눈다는 것 자체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힘이라 생각합니다.”

엄 대표의 기부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아이들이나 어른신 환우들의 머리를 손질해 주는 미용봉사를 한다. 또한 아프리카 빈민국 중 하나인 수단에서 하는 ‘망고나무 심어주기’ 활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수단에서는 ‘망고나무를 한그루 심으면 3대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어린아이들이 커가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망고나무를 심어주는 일입니다” 한 교회의 목사님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도 매달 쌀이나 음식을 기부하고, 필리핀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나눔을 통해 더 아름다워지는 기업

“큰 금액의 기부나 대형 봉사 프로젝트와 비교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지만 다 같이 서로를 안아주고 어려움을 나누는 자체에서 인생의 아름다움을 찾고자 합니다. 저희 꾸아퍼스트 직원들 모두가 외형적인 아름다움 뿐 아니라 이런 아름다움을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경영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헤어살롱과 함께 미용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의 기술교육 뿐 아니라 인성교육을 위해서다. “저희 회사 사훈은 ‘건강한 아름다움과 온전한 행복’입니다. 교육을 통해 고객에게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직원 스스로도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행복해야 그 사회가 행복하고, 고객이 행복해야 그 기업이 행복하다는 게 엄 대표의 생각이다. “앞으로도 부천병원과 함께 아름다움은 전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야 말로 기업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엄 대표는 “부천지역 분들의 사랑, 그리고 부천병원과의 인연을 통해 얻은 많은 것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꾸아퍼스트’가 존재할 수 있다”며 “그동안 많은 혜택을 준 부천병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이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겉모습의 아름다움만이 아닌,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엄 대표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의 더 큰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성 쇼그렌증후군 특징 밝혀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이경언 관절류마티스내과 교수팀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 이경언 교수팀(김현숙, 최원호, 김종선, 건국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상헌, 김해림)은 4년간의 연구 끝에 노인성 쇼그렌증후군 환자의 임상 증상과 침샘 변화의 특징을 밝혀냈다.

> 1933년 스웨덴 안과 의사 헨리 쇼그렌이 처음 발견해 '쇼그렌증후군'이라 명명된 이 질환은 자가면역 질환의 하나로 자신의 면역 세포들이 침샘과 눈물샘을 공격해 염증과 조직의 파괴를 일으킨다.

이경언 순천향대 서울병원 관절류마티스내과 교수

65세 이상 고령 쇼그렌증후군 임상적 특징 알려진 바가 없어

1933년 스웨덴 안과 의사 헨리 쇼그렌이 처음 발견해 '쇼그렌증후군'이라 명명된 이 질환은 자가면역 질환의 하나로 자신의 면역 세포들이 침샘과 눈물샘을 공격해 염증과 조직의 파괴를 일으킨다. 대부분 40대 이후 중년 여성에서 잘 발생한다. 그 동안 발표된 쇼그렌증후군 연구들은 주로 40~60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고령에서 발병한 노인성 쇼그렌증후군 환자의 임상적 특징에 관해 알려진 바가 없었다.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환자 총 22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쇼그렌증후군 환자의 발병 나이에 따라 임상 특징, 혈액검사 및 침샘초음파 소견의 차이점을 평가했다. 발병 나이는 65세 이상, 40-65세와 40세 미만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했다.

간질성폐질환 동반률 51%로 매우 높아

전체 환자 중 약 20%가 65세 이상에서 발병한 노인성 쇼그렌증후군이었다. 노인성 쇼그렌증후군 환자는 폐침범(간질성폐질환)의 동반율이 51%로 매우 높았고 이는 흉부 CT 검사로 진단했다. 또 혈액검사에서 쇼그렌증후군 특이적 항체(항 Ro 항체)의 양성률이 낮았다. 반면 젊은 나이에 발병한 쇼그렌증후군 환자에서는 염증성 관절염과 혈액검사 이상 소견(항 Ro 항체 양성, 보체의 감소, 고면역 글로불린혈증 등)이 더 많이 발생했다. 이경언 교수는 "고령에서 발병한 쇼그렌증후군을 진단하는 경우 혈액검사만으로는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면밀하게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침샘초음파 통해 침샘 염증 소견 확인 필요

침샘초음파 소견도 발병 나이에 따라 달랐다. 고령 환자에서는 침샘의 위축소견이 더 관찰되었고 65세 미만의 환자에서는 침샘의 염증을 시사 하는 소견이 더 많이 관찰되었다.

이경언 교수는 "입 마름은 노인에게 나타나는 흔한 증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쇼그렌증후군과 정확하게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령의 쇼그렌증후군은 간질성폐질환의 동반률이 높고, 이는 사망률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흉부 CT 등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폐의 이상 소견이 있는지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침샘초음파는 침샘의 이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하고 안전한 검사다. 쇼그렌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침샘초음파를 통해 침샘의 염증 소견을 확인한다면 진단과 경과 파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경언 교수팀의 연구 "Elderly-onset primary Sjögren's syndrome focused on clinical and salivary gland ultrasonographic features(노인성 쇼그렌증후군의 임상 및 침샘 초음파적 특징)"은 Joint bone spine저널(2021년 1월호)에 게재됐다.

한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관절류마티스내과에서는 초음파 클리닉 운영과 침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개원 20주년 기념 엠블럼 제정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병원장 신응진)이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아 기념 엠블럼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한 엠블럼은 20살이 되어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청년처럼, 100년의 미래를 향해 쉼 없이 달려가는 순천향대 부천병원의 다짐과 열망을 담아 '비상하는 날개' 모양으로 표현했다.

SOON CHUN HYANG
UNIVERSITY HOSPITAL
BUCHEON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개원 20주년 기념 엠블럼

색상은 순천향대학교 전용 3색인 밝은 녹색, 어두운 녹색, 하늘색을 사용하여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및 부속병원의 이미지를 유지했다. 2001년에 개원한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지난 20년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부천 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자, 경기 서북부권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중증환자 치료 거점병원'의 역할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차 환자경험평가'에서 국내 BIG 5 병원을 제치고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뛰어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명성을 떨쳤다. 또한, 개원 초기부터 의료봉사단을 설립하고 순천향의 '인간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등 국내외 의료봉사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앞장서 왔다.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올해는 우리병원의 개원 20주년이자, 설립자이신 故 향설 서석조 박사님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쉽지 않지만, 순천향의 '인간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올해 병원 정상화를 잘 이뤄낸다면 내년에는 이 경험과 에너지가 새로운 도약과 비상의 원천이 되리라 생각한다. 신축년 소의 해를 맞아 모든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 개소

부천시 권역 성폭력 피해자 신속 지원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센터장 신응진)가 지난 1월 22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향설관 지하 2층에 문을 열고, 부천시 권역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시작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 지원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공공기관이다.

1.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 개소식. 왼쪽부터 이소영 센터 소장(순천향대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신응진 센터장(순천향대 부천병원장),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문종호 순천향대 부천병원 진료부원장
2.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 산부인과 진료실

이번에 개소한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는 응급 및 지속 지원을 함께하는 통합형 해바라기센터로 경기도에서 3번째다. 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지방경찰청, 병원이 다자간 협약을 맺고 운영한다. 여성가족부와 경기도가 시설 설치 및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병원 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경찰청은 여성 경찰 인력을 제공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내 설치된 '응급지원센터'에는 산부인과 진료실을 비롯해 상담실·진술 녹화실·안정실 등 피해자 치료와 안정을 위한 시설이 마련됐다. 병원 외부 건물에 설치된 '지속지원센터'에는 피해자가 지속적인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실 등을 갖췄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응진 병원장이 센터장을, 이소영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센터 소장을 맡고,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 5명과 상담원·간호사·임상심리전문가 등 전문 인력 15명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힘쓴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 상담, 의료, 수사, 심리 지원 등이 필요한 사람은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032-651-1375)하면 신속하게 도움받을 수 있다.

신응진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장은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안산시나 고양시로 이동해야 했던 부천시 권역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 신속하게 지원받게 됐다. 모든 센터 구성원이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의료지원 및 치료, 회복, 권익 보호, 재발 방지 등에 힘써 부천시 권역의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천안병원, 중부권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전담

'중부권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 통해

중부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인 천안병원은 최근 코로나19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충남북, 대전시, 세종시 지역 등의 코로나19 치료담당 의료진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전담하고 있다.

1호 접종자인 서윤하 간호사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1. 화이자 백신이 초저온 냉동고에 입고되고 있다.
2. 천안병원 의료진이 희석한 화이자 백신을 주사기에 분주하고 있다.
3. 천안병원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 내 이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4. 접종자들이 문진표 작성 후 발열체크를 받는 모습.
5. 접종 후 이상증상 유무를 관찰하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

지난 2월 천안병원은 화이자 백신 보관 및 접종 전담 시설인 코로나19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를 천안시 실내배드민턴장에 설치했다.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냉동고를 갖춘 센터는 접수 및 문진표 작성부터 예진-접종-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백신접종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진행한다. 예진의사 4명을 비롯해 총 22명의 전담 인력을 두고 있는 센터는 하루 최대 600명 접종이 가능하다.

애초 질병청의 계획은 권역내 모든 대상 의료진의 백신접종은 센터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동 거리와 의료기관들의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접종인원 120명이 넘는 10개 의료기관은 센터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아 자체 접종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2월 26일, 1만6380도스(8,190명 접종분)의 화이자 백신이 인천공항을 거쳐 삼엄한 호위를 받으며 센터에 입고됐다.

3월 3일, 드디어 센터의 직접 접종이 시작됐다. 접종은 모두 최소 잔여형(LDS·Low Dead Space) 주사기를 사용했다.

인터넷으로 접수 신청한 556명의 의료진이 3월 9일까지 신청일에 맞춰 1차 접종을 마쳤다. 이들은 3주 후인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2차 접종받는다.

1호 접종자는 순천향대천안병원 코로나19 전담병동에 근무하는 서윤하 간호사. 서 간호사는 "기다렸던 백신을 맞게 되어 안도감이 들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접종 소감을 밝혔다.

이문수 병원장은 "백신 접종은 중부권 지역주민에게 행복한 일상을 되돌려주는 희망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며, "백신 종류를 구분하지 말고 본인 순서가 오면 안심하고 접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안병원은 이와 함께 3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10개의 자체접종기관의 담당자들을 센터로 불러 참관교육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자체접종이 진행되도록 도왔다.

3월 10일부터 자체접종기관으로 백신 공급도 시작됐다. 1차 접종분량은 16일까지 배송되며, 3주 후 2차 접종을 위한 배송도 이어진다.

순천향대 구미병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로 아동학대 신속 대처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병원장 임한혁)은 지난 4일 구미시로부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구미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지정식을 가졌다.

구미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행사에 참석한 구미시, 구미 차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관계자들.

구미시 아동학대 ONE-STOP 통합지원체계 구축

이번 지정식은 임한혁 병원장(순천향대 구미병원)을 비롯하여 장세용 구미시장, 김병국 병원장(구미차병원), 김태우 순천향햇살아이지원센터대표(순천향 내과계 진료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지정식을 통해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를 막고 신속한 의료지원과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갖추었다.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학대의심 아동이 내원 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신속한 신고 및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인 순천향구미 햇살아지원센터에서는 2007년부터 관련기관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방임 및 학대아동에게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ONE-STOP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임한혁 병원장은 "우리병원은 2007년에 순천향구미 햇살아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가정내 방임 및 학대아동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학대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학대 아동 지원체계를 더 강화하고 지원서비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왼쪽)과 임한혁 순천향대 구미병원장

순천향구미 햇살아이지원센터 후원 신청서를 작성 중인 구미병원 교직원들(왼쪽)과 아나바다 후원금을 모아 기탁한 중환자실 교직원들.

순천향구미 햇살아이지원센터 2008년부터 403명, 1억 6천만원 지원

순천향구미 햇살아이지원센터(대표:김태우 내과계 부장)는 2007년에 설립되어 부모로부터 소외된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발굴하여 보이지 않는 폭력, 잘 드러나지 않는 정서학대와 방임의 심각성에 관심을 갖고 통합적 아동보호체계를 운영 중인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순천향구미 햇살아이지원센터는 정부 지원금 없이 구미병원 교직원과 뜻을 함께 하는 후원자 250여명의 기금으로 아동과 가정을 돕고 있으며, 위기아동에게 ONE-STOP 통합지원체계로 언어치료, 심리검사 및 치료 지원, 찾아가는 가정방문, 지역사회 연계 및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받은 아동은 403명으로 약 1억 6,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다.

순천향구미 햇살아이지원센터는 사업을 통해 정서학대의 새로운 인식을 전환하게끔 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취약계층의 조기발견 및 아동보호체계를 통해 미래 세대의 따뜻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한재준·이치규 순천향대 서울·천안병원 교수팀

스테로이드-니모디핀 병합요법, 돌발성 난청 치료 획기적 개선

한재준 순천향대 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치규 순천향대 천안병원 교수

한재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와 이치규 천안병원 교수팀이 돌발성 난청의 새로운 치료법을 발표했다. 돌발성 난청은 갑작스럽게 청력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발생 시 청력 저하 뿐 아니라 이명, 어지럼증 등 심각한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현재까지 돌발성 난청의 효과적인 치료법은 스테로이드 약물치료가 유일하며, 효과는 제한적이다.

치료효과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는 것 확인

한 교수팀은 4년간 돌발성 난청으로 내원한 성인 78명을 대상으로 기존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스테로이드 치료법 대비, 스테로이드와 니모디핀 약물을 병합해 투여하는 새로운 치료법의 효과를 비교했다. 니모디핀은 혈관 확장작용을 하는 약물로 허혈성 신경장애의 예방 및 치료 등에 사용된다.

치료 후 청력개선 정도를 평가한 한 교수팀은 스테로이드와 니모디핀 약물을 병합 투여함으로써 치료효과가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존의 스테로이드 치료법에 비해 니모디핀 병합요법을 사용할 경우 청력이 완전히 회복되는 완전회복 비율이 16.8%에서 41.7%로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한 교수팀은 연구를 통해 니모디핀 병합요법의 우수한 치료 결과는 치료 전 청력이 90dB 이하인 환자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완전회복의 치료 기간 또한 평균 8.8주에서 4.4주로 단축된다고 보고했다.

한재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의 스테로이드 치료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니모디핀 병합요법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확인했다."며 "이 치료법은 특히 중증도 난청 환자에서 정상청력 범위로 회복되는 비율을 높이고 치료 기간을 단축시킨다." 고 설명했다.

'니모디핀과 스테로이드 병합요법의 돌발성난청 치료 효과(Nimodipine and Steroid Combination Therapy for Idiopathic Sudden Sensorineural Hearing Loss)' 연구는 이비인후과 SCI학술지 Otology & Neurotology 2020년 8월 41권 7호에 게재됐다.

> 기존의 스테로이드 치료법에 비해 니모디핀 병합요법을 사용할 경우 청력이 완전히 회복되는 완전회복 비율이 16.8%에서 41.7%로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행복한 캠핑이 사망사고 부른다!

'일산화탄소 중독'이 주범… 폐쇄된 공간 위험

한상수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근 캠핑과 차박을 즐기다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사고 조사에 따르면 캠핑이나 차박 중 액화가스 난로나 무시동 히터 같은 난방기를 켜놓고 자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무미의 비자극성 가스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탄소가 포함된 물질이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망을 일으키는 중독물질 중 가장 흔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가벼운 몸살, 두통, 오심, 구토와 같은 경미한 증상부터 실신, 시야 변화, 의식장애, 경련, 흉통과 같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른다. 대부분 증상이 비 특이적이므로 다른 질환과 감별이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폐쇄된 공간에서 장시간 불을 사용해 조리하거나 전열 기구를 오래 틀어놓은 후 두통이나 몸살 기운이 생긴다면 가까운 병원을 가봐야 한다.

일산화탄소 중독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고농도의 산소를 충분히 투여해야 한다. 증상에 따라 고압산소치료를 시행해 체내의 일산화탄소를 10배 이상 빠르게 배출시킨다. 일반적인 고압산소치료는 2.4~2.8기압으로 90~120분간 시행하며 증상에 따라 수차례 반복해 치료한다.

일산화탄소 중독의 가장 큰 후유증은 '지연성 신경학적 후유증'이다.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2~40일간 증상 없이 의식이 명료한 기간을 가진 후에 인지기능 저하, 기억상실, 파킨스니즘, 마비, 무도병, 행위 상실, 인식 불능, 기억장애, 보행 장애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지연성 신경학적 후유증은 증상 없이 의식이 명료한 기간 후에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가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뒤 30일 전후로 가장 많이 발생하며 대부분 3개월 이내 발생하나, 1년 후까지도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 후유증 증상이 발생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하려면 첫 번째, 전열 기구를 오랫동안 트는 경우 자주 환기하기, 두 번째, 폐쇄된 공간에서 불을 사용하는 조리 피하기, 세 번째, 가스보일러 배기통에 찌그러진 곳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네 번째, 가스보일러나 온수기 등을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설치하기, 다섯째, 일산화탄소 감지 경보기 설치하기 등이 도움이 된다.

"일산화탄소 중독의 가장 큰 후유증은 '지연성 신경학적 후유증'이다.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2~40일간 증상 없이 의식이 명료한 기간을 가진 후에 인지기능 저하, 기억상실, 파킨스니즘, 마비, 무도병, 행위 상실, 인식 불능, 기억장애, 보행 장애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폐암환자의 막힌 숨구멍, 치료기관지내시경으로 뚫어 살린다

폐암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암 사망률 1위를 차지 할 정도로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암이다. 다른 암에 비해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진단 당시 대부분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로 발견된다. 폐암의 증세는 다양하다. 무증상인 경우가 허다하고 일반 감기와 구분이 모호할 정도의 가벼운 기침만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 후 병기 판정 검사를 시행하며, 보통 1기나 2기인 경우는 수술을, 3기나 4기인 경우는 항암이나 방사선치료를 선택한다.

서기현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폐암, 진행되면 숨구멍 막고 대량 객혈 유발

대부분의 진행된 폐암은 주로 기관지를 침범해 환자들은 천명음, 협착음, 기침, 객혈, 쉰 소리 및 흉통 등을 호소한다. 더 진행하면 심한 호흡곤란과 반복적인 호흡기계 감염, 대량 객혈이 동반된다. 특히 악성 기도폐쇄를 동반한 환자에서는 호흡곤란을 동반할 정도로 숨구멍이 막히거나 24시간 이내의 100ml 이상의 대량 객혈이 있어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치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즉각적인 치료가 되지 않으면 환자는 1~2개월 내 사망하게 된다.

기도 폐쇄나 객혈을 동반한 폐암환자에서 보편적인 치료는 스테로이드 주사와 방사선치료이다. 하지만 방사선치료는 중심기관지 암 조직에서는 치료 효과가 느려 호흡부전이나 폐렴 악화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기도 협착이나 객혈이 발생하여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또한 폐암 진단 시 전신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엔 방사선치료를 시행할 수 없어 아무 치료도 없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기도 확보와 지혈, 치료기관지내시경 시술로

기존 스테로이드주사와 방사선치료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중간 단계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치료기관지내시경 시술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치료기관지내시경은 최종적인 치료인 수술이나 방사선, 항암치료로 넘어가기 위해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 기도폐쇄를 신속히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악성 기도 폐쇄를 동반한 암환자에서 기도 폐쇄가 없는 환자보다 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예후가 나쁘고 사망률이 높다. 하지만, 치료기관지내시경 시술로 악성 기도폐쇄를 치료한 후 폐암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면 악성 기도폐쇄가 없는 일반 폐암환자의 사망률과 비슷해진다. 따라서 신속한 기도폐쇄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치료기관지내시경은 폐암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기도 협착이나 객혈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할 경우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심각한 증세가 발생하면 우선 작은 크기의 기관튜브를 삽입하여 산소공급을 유지하고 원인에 따라 어떤 치료기관지내시경 방법을 선택할 지 결정한다.

다양한 치료기관지내시경 시술법

대표적인 치료 기관지내시경은 레이저치료, 냉동치료, 광역동 치료, 근접방사선치료, 전기소작술, 풍선 확장술, 스텐트 삽입, 종괴내 항암제 주입술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시행하고 있는 치료기관지내시경에는 기도내 응고제 주입술, 이물질 제거, 기도 누공 폐색술, 기관지밸브 삽입술, 경피적 기관절개술, 종격동 임파선 조직검사 등이 있다. 특히 레이저를 이용해 기도 내부를 막고 있는 종괴를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할 수 있고 종괴에 의한 대량 출혈도 쉽게 조절할 수 있어 기관지 종양 치료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종괴가 크지 않은 경우는 냉동치료를 통해 암 조직을 괴사시킬 수 있고 조기 폐암에도 좋은 치료 성적을 보인다. 반복적인 암 재발로 기관지 협착이 재발되면 풍선 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치료기관지내시경 레이저수술 가장 활발히 시행

가장 활발히 시행되는 치료기관지내시경 시술은 레이저수술이다. 레이저수술은 전신 마취하에 수술실에서 진행한다. 경직성 기관지내시경이나 후두마스크나 인공 삽관을 통해 굴곡성 기관지내시경을 삽입하여 병변 부위에 레이저 카테타를 가까이 대고 레이저를 쏜다. 충분한 레이저 조사로 병변부위가 지혈되고 조직이 타서 기화되어 없어지게 되면 남은 조직을 겸자를 이용해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시술 시간은 1~2시간 정도 소요된다.

전신 마취가 필요 없는 양성 종양이나 이물질에서는 기관지내시경실에서 가벼운 마취와 시술 부위에 부분 마취를 통해 시술이 진행되고 치료 방법은 위와 똑같다. 시술 시간은 30분~1시간 정도 소요된다.

합병증은 일반 기관지내시경의 합병증과 비슷하다. 보고된 바로는 5% 이내에서 발생하고 심각한 부작용은 1.5% 이내이다. 시술 부위의 출혈, 레이저로 인한 기도 천공이나 기도 화상, 기흉, 저산소혈증, 폐부종, 공기 색전증, 부정맥, 심장마비 등이 올 수 있지만 본원에서 2014년도부터 약 200예의 레이저 시술을 하였고 대부분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부작용만 있어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라 말할 수 있다.

이제 치아 임플란트 수술 누구나 가능

치료기간 줄일 수 있는 신기술 개발

안대형 순천향대 부속 구미병원 치과 교수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는 말이 있다. 건강한 치아가 바탕이 되어야 균형 잡힌 식사가 가능하고, 이는 전신건강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선조께서는 일찍부터 깨우치고 있었던 것이다.

치아 임플란트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상실된 치아를 수복하는 방법은 브리지(bridge)와 틀니뿐이었다. 브리지는 상실된 치아 양옆의 건강한 치아를 삭제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상실 부위의 치아가 받던 힘을 양 옆 치아가 나누어서 견뎌야 하므로, 양 옆 치아의 잇몸 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틀니는 넣었다 뺐다 해야 해서 관리가 힘들고, 치아가 한 개도 없는 경우엔 잡아주는 부분이 거의 없어 탈락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잇몸으로 씹는 힘을 견뎌야 하므로 음식물을 씹을 때 많은 불편감이 따른다. 연구에 따르면 틀니는 원래 치아의 1/30 정도의 씹는 힘 밖에 발휘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불편감 없이 상실된 치아를 수복할 수 있는 방법이 치아 임플란트이다. 임플란트는 원래 이식이라는 뜻이다. 생체조직의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인공 재료 혹은 천연 재료를 결손부에 이식하여 형태의 재건하고 기능을 대체시킬 때에 사용되는 재료(인공장기) 혹은 이식술을 말한다. 우리 몸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인공재료 혹은 이식술은 원래 모두 임플란트라고 칭하지만, 현재 치아 임플란트가 가장 활용도와 성공률이 높아 보통 '임플란트'하면 치아 임플란트를 뜻한다.

3~6개월 기다리지 않고 치료 가능

치아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기 전에 치과의사와 함께 몇 가지 검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먼저 환자의 잇몸뼈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잇몸뼈가 부족하다면 잇몸뼈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잇몸뼈 이식에 대한 술식이 개발되어, 예전에는 임플란트 치료를 할 수 없었던 환자들도 치료가 가능해 졌다.

치아 임플란트의 치료 과정은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임플란트 식립체(fixture)를 잇몸뼈 속에 심는 과정이고, 2단계는 잇몸뼈랑 잘 융합된 식림체에 지대주(abutment)를 연결하고, 치아 모양 보철물을 붙여 완성하는 것이다. 여러 형태의 임플란트가 나오면서 식립체와 지대주가 일체형인 임플란트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는 2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

1단계로 식립체를 잇몸뼈에 심는 과정이 지나면, 2~3개월 정도 식립체와 잇몸뼈가 붙는 시간을 기다린다. 2~3개월 후 잇몸뼈와 식립체가 잘 붙었다고 판단되면 식립체에 지대주를 연결 한 후 치아모양 보철물을 제작하여 임플란트를 완성한다. 현재는 여러 기술이 개발되면서 2~3개월 걸렸던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추세이다. 식립체를 심는 그 날 즉시 치아 보철물까지 완성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과거에는 이를 빼고 3~6개월 기다린 후 임플란트 식립체를 심었지만, 현재는 이를 빼면서 바로 발치와에 식립체를 심는 경우가 많다. 물론 치아 주변 뼈의 염증 여부, 환자 잇몸 뼈의 상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치아 임플란트를 시행할 치과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진료를 하다 보면, 치아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다. 심지어 임플란트 식립체를 심은 후에도 자녀분들의 성화에 다시 식립체를 빼야 한다면서 오셨던 환자분도 계셨다. 하지만 치아 임플란트 재료와 술식 그리고 치과의사의 실력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두려움 보다는 새로운 치아에 대한 희망은 갖고 치료를 받아도 무방할 것이다.

KINEVO 900

키네보900_최첨단 미세수술 현미경

주요 장점

고해상도 화질, 적외선 및 형광 필터, 네비게이션, 포지션 메모리 기능 탑재
집도의가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혈류와 림프의 흐름 등을 별도의 검사 없이 실시간으로 확인
더 안전하고 정밀한 수술 가능, 수술 시간이 단축되어 환자들의 빠른 회복 기대

순천향대 부천병원 림프부종센터 차한규 성형외과 교수(가운데)가 최첨단 미세수술 현미경 '키네보 900'을 사용해 림프부종 수술을 하고 있다.

국내 림프부종센터 최초로 '최첨단 미세수술 현미경(키네보 900)' 도입

순천향대 부천병원 림프부종센터가 최첨단 정밀 수술·진단 장비를 도입해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림프부종은 림프액이 순환에 문제가 생겨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하조직에 고이는 질환이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풍부한 수술 경험을 갖춘 림프부종 전문 의료진이 다학제 협진을 통해 큰 수술적 치료 성과를 내왔다. 특히 '림프관-정맥 문합술'과 '림프절 이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진이 국제적으로도 드물다 보니, 그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던 환자들이 전국에서 순천향대 부천병원을 찾고 있다. 림프부종 수술은 초미세 혈관을 다루는 고난도 수술이라 의료진의 풍부한 수술 경험과 더불어 적외선 카메라, 고배율 현미경 등 특수 장비가 필요하다. 최근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더 나은 수술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독일 칼자이스(Carl Zeiss) 사의 최신 미세수술 현미경 '키네보 900(KINEVO 900)'을 도입했다. 특히 국내 성형외과 중 미세수술 현미경 '키네보 900'을 림프부종 치료 전용으로 도입한 것은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처음이다.

“가장 일하고 싶은, 가장 치료 받고 싶은 병원 만들 것”

순천향 의대 1회 졸업생으로 19대 병원장 취임

허허벌판, 건물 한 채로 지난 1978년에 시작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은 어느덧 43년이 흘렀다. 지금은 서울, 부천, 천안, 구미 각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없어서는 안될 대학병원으로 눈부시게 성장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금의 병원으로 성장시킨 것은 앞서간 선배들의 노고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대 1기 양거승 교수는 지금의 순천향대학병원의 밑거름이 된 자랑스런 선배 중 한명이다.

글_전진용 사진_장덕희

올해 지난 1월 19일 역사 깊은 종합병원 중 하나인 삼육서울병원의 19대 병원장이 취임했다. 순천향대 의과대 1기 출신인 양거승 병원장이다. “제가 처음 순천향대학교 의대를 다닐 무렵, 논과 밭 그리고 의대건물 하나가 전부였어요. 총원도 80명에 불과했죠. 하지만 모두가 가족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우리 의대가 지금 이렇게 성장한 것을 외부에서 바라볼 때 너무나도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 시절 의대건물 주변에는 논과 밭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가게나 술집, 식당조차 없었다. 그나마 운동을 좋아하는 양거승 원장은 가끔 소프트볼을 즐기는게 전부였다. 순천향대학교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부터 줄곧 함께 한 곳이 삼육서울병원이다. 잠시 개업을 했던 적을 빼고는 서울삼육병원에서 의사의 모든 인생을 살아왔다. 개업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 2006년 시점부터 계산해도 15년이 흘렀다. “이 곳에 있으면서도 천안, 부천, 구미 병원들이 생기고 발전하는 모습을 항상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후배들이 자랑스럽더군요. 저희 병원에도 동문 후배들이 있지만 동문행사나 여러 큰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하지만 항상 응원했습니다.”

인턴에서 시작해 병원장이 되다

산부인과 전공인 양 원장은 서울삼육병원에서 진료부장, 행정부원장 등을 거쳐 지금의 병원장의 위치에 올라왔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계십입니다. 저희 병원의 이념은 ‘가장 일하고 싶은 병원, 가장 치료받고 싶은 병원’입니다. 이 같이 되기 위해서는 직원, 환자와의 관계십이 중요합니다.” 삼육서울병원은 1천명이 넘는 직원이 있다. 양 원장은 이들과 벽없이 소통하기 위해 항상 자신의 원장실 문을 열어 놓는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원 한명 한명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다.

“직접 소통해야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거든요.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세심히 들어주고 존중하는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가 쌓일 수 있거든요.”

병원장이 된 지금 양 원장이 가장 먼저 추진하는 것은 병원의 규모를 더욱 키우는 것이다. “현재 의사가 90명이상이지만 441 베드 규모거든요. 병원 옆 7000평 부지에 병원을 증축해 600~700 베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양 원장의 계획대로라면 2023년 쯤에는 더욱 규모가 커진 삼육서울병원을 볼 수 있다.

취임 후 병원을 위한 업무에 바쁜 나날을 보내지만 틈틈이 그림과 서예를 즐긴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몇 년 배운 것과 대학시절에 서예동아리에 있었던 것이 전부지만 인생에서 큰 의미를 준다. 원장실 벽에는 손수 그린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인물화가 걸려있다. 책상에서 여러 병원직원들의 초상화도 책상 유리 밑에 수십장이 놓여 있다. “존경하는 이들과 사랑하는 이들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롤모델이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님이거든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 분의 여러 배울 점을 다시 되새기곤 합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준비하라

100세가 넘어서도 1년회 1백회이상 강연을 하고 책을 집필하는 김형석 연세대 교수를 보며 지금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 중요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가장 중요한 시기는 60세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 그 결실이 맺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순천향대학교 후배들도 힘든 지금의 순간이 훗날 결실로 맺어짐을 기억해 줬으면 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은 빨리 가거든요.”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은퇴를 한 후에는 해외의료봉사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계획이다. 10여년간 동남아 15명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직접 어린이들을 만나면 오히려 제가 힐링을 받는 기분입니다. 도와줘서가 맛이 아니라 소소하게라도 도와줄 수 있다는데 감사합니다.”

많은 후배 동문들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도 드러냈다. “수천명의 후배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역할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항상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자신을 가꿔 나기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하루빨리 미국에 있는 두 딸과 재회하고 싶다는 양 원장은 “이제는 사회 곳곳에서 빛을 내고 있는 많은 후배들과 모교인 순천향대학병원과의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그동안 미래를 준비해 오고 또 다른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양 원장의 모습속에 순천향대학병원이 놀라운 성장을 이뤄 온 이유의 실마리가 있었다.

의료원 / 순천향대 / 의대동창회

캄보디아 보건부에 마스크 등 코로나19 방역물품 기부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1월 11일 별관 지하1층에서 캄보디아 보건부에 마스크 10만장을 포함한 코로나19 방역물품 기부 행사를 가졌다. 캄보디아에서 코로나 19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한국산 방역 마스크 10만장과 비접촉 체온계, 코로나 항바이러스 필름 등 현장에서 필요한 품목을 선정했다. 미화 2만 불이 넘는 수준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한캄보디아 대사관과 순천향대중앙의료원이 2020년에 진행한 업무협약(MOU)에 기초한 것으로 대사관의 요청과 의료원의 협력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의료원 산하 4개 병원(서울,부천,천안,구미)이 함께 참여해 기부의 의미를 더했다. 서유성 중앙의료원장은 "국내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이웃 국가를 돕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우리의 작은 행동이 캄보디아의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아우스트랄대학병원 간 의학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원장 서유성)과 아르헨티나 아우스트랄 대학병원(원장 빼르난도 루디까)은 1월 12일, 의학 교류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우스트랄 대학병원은 수도에 위치한 200병상 규모의 지역거점 병원이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 알프레도 바스쿠 대사의 요청으로 작년 5월 8일 아르헨티나 아우스트랄 대학병원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역량강화' 웨비나를 개최한 바 있다. 서유성 의료원장은 "작년 웨비나를 계기로 이렇게 보건의료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의료원은 설립자 서석조 박사께서 강조한 인간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다양한 병원, 대학과 교류하고 있다. 오늘 협약식 이후로는 아르헨티나와도 더욱 적극적인 교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2021년 2월 온라인 학위수여식 개최

순천향대가 2월 18일, 2021년 2월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학위수여식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축하영상과 포토존 설치로 대체했다. 서교일 총장은 축사 영상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학문적 성취의 무게와 가치는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의 졸업이 우리 사회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고 격려하며 "향설의 제자답게 촛불처럼 주변을 환하고 따뜻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 배출된 졸업생은 학사 2,180명, 석사 209명, 박사 23명으로 총 2,412명이다.

교육대학원·특수교육과, 교육부 평가 'A등급'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과 특수교육과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획득했다. 순천향대는 이번 진단 평가에서 교육대학원(양성과정)과 일반대학 특수교육과가 각각 최우수 A등급을 획득해 부총리 표창을 받게 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특수교육과는 특수교육 이론과 지식의 체계적인 기반 위에 현장과 연계된 실무중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을 통합적이고 교과 연계적으로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대학원의 경우 'SCH 에듀-토링 교육과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장의 요구에 적합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 점, 교육대학원 소속의 우수전임교원들이 재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도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받았다.

7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순천향대학교는 최근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에서 우수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순천향대는 지난 2015년부터 7년 연속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번 3주기 인증제는 어학연수과정과 학위과정(학부, 대학원)을 분리 평가했다. 전국 4년제 대학 10개교가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됐으며 42개교가 일반 인증대학으로 신규 인증됐다. 순천향대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 내달부터 오는 2023년 2월까지 '우수 인증대학' 자격을 얻는다.

대학일자리센터 연차성과 평가 '우수 대학'

순천향대학교는 최근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주관의 2020년 대학일자리센터 연차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의 일원화와 지역 청년고용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지원한다. 순천향대는 지난해 재학생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강화해 학생종합경력개발시스템 '아이디자인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또 진로지원관과 재학생 간 원활한 상담을 위해 온라인화상 상담, 모바일 메신저 상담 등 Z세대의 니즈를 반영한 상담 채널도 확장했다. 이와 함께 순천향대는 61개 학과 학생 약 43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특강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했다. 자기주도형 전공탐색과 진로설계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도 매진했다.

서울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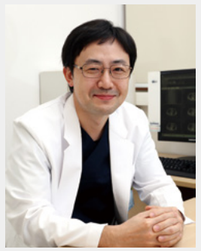
이민혁 교수 등 다국적 연구팀, 유방암 고위험 유전자 실체 확인 'NEJM' 발표

이민혁 외과 교수가 공동연구책임자를 맡고 있는 '한국인유전성유방암연구회(KOHBRA)'가 참여한 다국적 연구팀이 유방암 고위험 유전자를 확인하여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 1월 21일자에 발표했다. '유방암 위험 유전자: 여성 11만3,000여명에서의 연관성 분석(Breast Cancer Risk Genes — Association Analysis in More than 113,000 Women)'이 제목이다. 다국적 연구팀은 44개 연구에서 확보된 여성 유방암 환자 6만466명과 일반 여성(대조군) 5만3,461명의 검체에 대해 다중 유전자 패널 검사(Gene-panel testing)를 실시했다. 연구 분석 결과 9개 유전자(ATM, BRCA1, BRCA2, CHEK2, PALB2, BARD1, RAD51C, RAD51D, TP53)의 단백질 생성 종결 변이와 유방암 위험도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원·권성순 교수팀, 대한내과학회 우수임상화보상 수상

박병원·권성순 심장내과 교수팀이 대한내과학회(이사장 김영균)가 선정하는 2020년도 하반기 우수 임상화보에 뽑혔다. 'Right heart failure due to arteriovenous fistula after lumbar spine surgery(요추 수술 후 합병된 동정맥루로 인한 우심부전 증례)'로 보고한 논문은 카자흐스탄에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심부전이 있어 우리 병원을 찾은 환자의 희귀하고 찾기 어려운 원인을 찾아내서 성공적으로 치료한 사례를 담고 있다. 대한내과학회는 매년 상,하반기마다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에 게재한 논문 을 심사하여 우수임상화보 1편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위소매절제술, 체중감소 및 인슐린 요구량 줄어



순천향대서울병원 외과 김상현·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외과 김용진 연구팀이 1형 당뇨를 가진 고도비만 환자에게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 있음을 확인했다.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1형 당뇨 환자에서 체중감소를 보였고 인슐린 요구량도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3명의 1형 당뇨 환자는 수술 후 평균 체질량지수가 8.6kg/m2(수술 전 40.8에서 수술 후 32.2), 일일 총 인슐ㅈ린 요구량은 70unit (수술 전 92.3에서 수술 후 22.3)로 감소했다. 김상현 교수는 "최근 1형 당뇨 환자의 비만도가 올라가면서 비만과 관련이 깊은 2형 당뇨의 주 기전인 인슐린 저항성이 더해져서 당뇨가 더욱 악화되는 '이중 당뇨'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환자들에게 위소매절제술이 체중 감량과 동시에 당뇨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대우산업개발, 마스크 10만장 기부

대우산업개발과 자회사 DW바이오가 12일(화)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에 '에어데이즈' 마스크 10만장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승준 대우산업개발 부회장은 "중증환자 치료는 물론, 선별·안심진료소, 응급실, 중환자실, 생활치료센터 등 곳곳에서 환자와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에어데이즈는 월 평균 1억 5천 장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초대형 마스크 전문 공장인 DW바이오에서 생산되어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품질로 의료진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사업팀, '펩타이드 아이크림' 게릴라 바자회

서울병원 사회사업팀은 2월 10일 점심시간을 이용, 직원식당 앞에서 스와니코코(SWANICOCO)에서 기증한 펩타이드 아이크림 리퍼제품 게릴라 바자회를 열었다. 인터넷에서 32,000원에 판매하는 제품을 1천원에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다.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환자를 돕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날 바자회는 순천향대서울병원에 지속적으로 발전기금을 기부하고 있는 글로벌텍스프리 그룹사인 스와니코코에서 펩타이드 아이크림 튜브형 20㎖ 리퍼제품 1,200개를 기부해 이뤄졌다.

(주)그래미, 순천향대서울병원에 건강음료 4만5천 캔 기부

숙취해소 음료 '여명 808'를 만드는 ㈜그래미에서 지난 2월 13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참조은겨 그랑프리 737' 음료 4만5천 캔을 기부했다. ㈜그래미의 설명에 따르면 "건강음료 '참조은겨'는 호흡기 질환을 예방, 또는 개선 효과가 있는, 차 조성물과 이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로 특허 출원을 받은 제품이다. 바이러스 뿐 아니라 미세먼지, 황사, 매연, 흡연 등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상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부천병원

김기운 권역응급의료센터장,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김기운 부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이 국내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높이는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김기운 센터장은 2015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주관하는 '119 구급대원 등 응급구조사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의 추진단장을 맡아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응급 환자 생존율과 정상 신경 기능 퇴원이 최근 5년 새 2배 정도 증가해 주요 언론에 우수 시범사업으로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김탁 감염내과 교수,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김탁 교수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김탁 교수는 부천병원 감염관리실장으로서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원내 감염관리체계를 책임지며, 환자 안전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힘을 쏟아왔다. 또, 김탁 교수를 포함한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감염내과 연구팀은 지난해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코로나19 확진자를 후향적으로 코호트 연구하고, 그 결과를 국제학술지 'JAMA internal medicine'에 발표했다. 해당 논문은 뉴욕타임스, CNN, BBC 등 해외 언론이 중요한 최신 논문으로 앞다퉈 소개해 큰 화제를 모았다.

부천병원, 고용노동부 '부천형 의료관광 전문코디네이터 양성사업 기관' 선정

부천병원이 '부천형 의료관광 전문코디네이터 양성사업 기관'에 최근 선정됐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천시와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부천병원은 코로나19로 실직한 의료 코디네이터의 재취업을 돕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료생 일부를 직접 채용하거나 지역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업체와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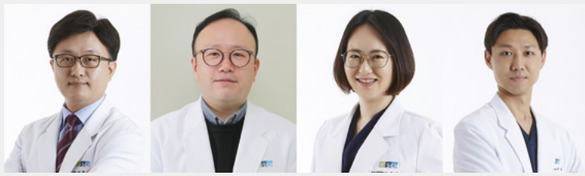
부천병원, 정부 지원 기초연구사업 7개 과제 선정

부천병원이 정부 지원 '2021년도 상반기 기초연구사업' 공모에서 7개 과제가 선정됐다. 기초연구사업은 우수 연구자 양성 및 연구기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다. 부천병원은 우수 신진 연구과제에 '골수형성이상증후군 환자의 치료반응 및 예후 예측인자 발굴을 위한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 연구(장미애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생애 첫 연구과제에 '비만 Exosomal Small RNA 분석을 통한 비만 관련 질환 치료전략 개발(최덕현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장과 방광내 마이크로바이옴과 악성복수의 상관관계 연구(윤진아 종양혈액내과 교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이용한 간경변증 환자의 자발 세균성 복막염 연구(유정주 소화기내과 교수)', '인공지능을 이용한 다중 창 환경의 영상 판독 시스템 구축 및 임상 적용(임상혁 영상의학과 교수)', '한국인 유방암-중복암 환자의 유전체 분석을 통한 암 발생 위험 생식세포 유전자의 발견 및 발굴(김지선 유방외과 교수)', '소아 소생술 상황에서 체중 추정을 위해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개발(한상수 응급의학과 교수)' 등이 선정됐다. 우수 신진 연구과제는 5년간 약 5억 원, 생애 첫 연구과제는 3년간 약 1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천안병원

이문수 병원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천안병원 이문수 병원장이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응원하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한 릴레이 캠페인이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자치경찰 시행 등 자치분권의 전환기를 앞두고, 자치분권 실현의 기대와 의지를 담은 핵심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함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문수 병원장은 '지역민이 신뢰하는 의료문화의 완성! 순천향이 함께 합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챌린지에 동참했다.



정부지원 기초연구사업 4개 선정

천안병원이 정부가 공모한 '2021년도 상반기 기초연구사업'에서 4개의 과제가 선정됐다. 천안병원은 이번 사업에서 우수신진연구과제(3년간 연1억원 지원) 2개, 생애첫연구과제(3년간 연3천만원 지원) 2개를 수행한다. 선정된 우수신진연구과제는 ▲외과 수술 후 문합부 누출방지용 트롬빈과 마이토마이신C 탑재 이중막의 전임상 평가(외과 정해일 교수), ▲환자유래 줄기세포-3D 바이오프린팅 융합기술기반 타액선 재생 원천기술 개발(이비인후과 박재홍 교수)이다. 생애첫연구과제는 ▲이종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방암 환자에서의 방사선치료 유발 심장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측도구 개발(방사선종양학과 조인영 교수) ▲빅데이터 기반 한국인 두개안면 중증감염의 조기진단을 위한 기준체계 및 플랫폼 개발(성형외과 이다운 교수)이다.

질병관리청장 표창 수상, '퇴원손상심층조사' 공로

천안병원이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질병관리청의 '퇴원손상심층조사'에 참여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국가손상감시사업인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전국의 100병상 이상 표본병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무기록 조사다. 손상으로 입원해 치료받은 환자들의 의료정보를 활용해 과학적 근거기반의 만성질환관리 및 손상예방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천안병원은 사업 시작년도인 2005년부터 15년간 표본병원으로서 퇴원손상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질병관리청의 사업을 적극 지원했다.

대장암 수술환자들과의 비대면 소통 "눈에 띄네"

코로나19로 인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천안병원 대장암센터의 SNS를 활용한 환자들과의 '비대면 소통'이 이목을 끌고 있다. SNS '밴드(BAND)'에 '순천향대천안병원 대장암팀'이라는 모임방을 개설한 대장암센터는 대장암수술 환자와 가족들과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회원들은 모두 의료진을 제외하고는 센터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와 가족들이다. 밴드에는 주당 평균 2건 이상의 환자상담이 올라온다. 처방 확인이나 다양한 증상에 따른 대처방법 등을 묻는 환자와 가족들의 질문들이 이어지고, 질문마다 센터 의료진의 빠르고 친절한 답변이 신속하게 달린다.

감염병 바이오뱅크 개소

천안병원이 '순천향 감염병바이오뱅크(SCH Bio-bank for Infectious Disease, SBID)'를 새로 조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SBID는 감염병 환자의 인체유래물들을 수집, 보관하는 곳으로 병원 혁신형의사과학자융합연구센터 내에 조성됐다. 인체유래물이란 연구를 위해 환자로부터 수집된 혈액 등 다양한 검체를 말한다. SBID가 수집, 보관하는 주요 인체유래물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 검체를 비롯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환자의 혈청 ▲호흡기바이러스 결핵 환자의 검체 ▲감염성 척수염 환자의 검체 등이다.

구미병원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오픈

구미병원은 3월 1일부터 32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지정하고 운영한다.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전문의가 없는 야간 및 휴일에도 입원전담교수(전문의)가 병동에 24시간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를 통해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전공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로서 구미병원이 지역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최초로 실시하게 되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 환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진료과 와의 다양한 협진이 필요한 경우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미병원은 현재 4명의 전문의(소화기내과 1명, 신장내과1명, 응급의학과2명)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배치되어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의료질 향상은 물론이며 환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햇살아이지원센터, 경북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햇살아이지원센터가 2021년 '경북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에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되었다. 공익활동지원 사업은 <위기 · 취약계층 아동의 심리정서지원>으로 문제행동이 있는 위기 · 취약계층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아동의 성장을 도모하고 가정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사업비는 1년간 총 600만원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아동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햇살아이지원센터는 2007년에 설립되어 부모로부터 소외된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발굴하여 보이지 않는 폭력, 잘 드러나지 않는 정서학대와 방임의 심각성에 관심을 갖고 통합적 아동보호체계를 운영 중인 비영리 민간단체로 구미병원 교직원과 후원자들의 기금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총 403명의 아동을 후원해 왔다.

신비한 약초세상 대구경북회, 취약계층 환자 의료비 후원

신비한 약초세상 대구경북회 김찬영(구미병원 시설팀 주임)회장은 지난 2월 5일, 구미병원에 암투병중인 김 모 씨에게 100만원을 지정기부 했다. 신비한 약초세상 대구경북회는 2003년 설립되어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약 14만명 회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산삼과 약초, 산야초 발효효소 담그는 방법을 공유하고 배우며 더불어 건강한 세상을 추구하는 인터넷 카페 모임이다. 김찬영 회장은 "한 부모 가정에 가장으로써 암투병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긴 투병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우수논문 선정

구미병원 임은경, 김애리, 심은주, 백진우 약사와 소아청소년과 이종현 교수는 한국병원약사회가 개최한 2020년도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부문에서 성조숙증 치료제인 "Triptorelin acetate 3.75mg의 약물 사용 평가"가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성조숙증은 빠른 진단과 투여가 최종 성인 신장(키) 성장의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약물치료 시작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연구는 구미병원에서 높은 빈도로 처방되는 데카펩틸-데포 주(Triptorelin acetate 3.75mg)의 진단 및 투여에 대한 사용 적정성을 평가해 보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17개월 동안 치료를 시작한 33명(여아 만9세, 남아 만10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